



화재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호텔 과 유흥장에서 발생 하는 화재는 대부분 대형화되고 인명피해가 많은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74년 대왕코너 나이트클럽 화재로 8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한 것을 비롯, 83년 대구 초원의집 디스코클럽 화재시에도 25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부상하는 등 유흥업소는 화재사고도 빈번할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인명피해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8년 1월 새벽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방화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어 화재가 확대되지 않은채 신속하게 진압된 한아름백화점. 화재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주에 있는 한아름백화점을 찾았다.

• 건물구조

전주시 중앙동3가 8번지 중앙부에 위치한 한아름백화점(대표 이사 임병록)은 연건평 1천2백 27평에 지하1층 지상6층 건물규모로 1980년 11월8일 백화점용으로 준공검사를 받고 지상1, 2층은 옥매판매장으로, 3층은 음식점, 4층과 5층은 유흥업소로 사용해왔다.

이 건물은 소방설비로 지하주차장에 포말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등 비교적 양호한 소방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대부분의 건물은 임대하고 5층 나이트클럽만 직접 운영해오고 있었다.

• 화재발생원인과 피해상황

한아름백화점의 화재는 88년 1월2일 새벽 5시15분경 5층 레드

옥스 나이트클럽에서 담배불 취급부주의로 추정되는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한다. 이때 3층 사무실에는 김기술씨가, 백화점에는 이종주씨가 경비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김기술씨가 바깥 순찰을 마치고 2층계단을 올라오고 있을때 갑자기 화재경보벨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어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소방서에 화재발생신고를 한 다음 5층으로 올라와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미 화재가 크게 확산된 상태였고 연기와 열기로 인하여 효과적인 소화작업을 전개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때 신속하게 출동한 10여대의 소방차에 의하여 화재발생 30분 후에 완전 진압하였다고 한다.

이 화재로 인하여 화재발생장소인 5층 부분의 외부 창호와 내

부가 소손되었으며 사무실로 사용하던 간이층 30여명이 무너지고 아래층 일부가 수침피해를 입었다.

● 보험가입과 손해보상

이 건물은 당시 유한회사 한아름백화점 대표이사 임병록 명의로 화재보험협회 전주지부에 87년 10월30일자로 1년만기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보험금액 5억3천4백만원, 1년보험료 98만2천8백80원)에 가입하였다.

협회는 한아름백화점으로부터 화재사고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손해사정회사에 손해사정을 의뢰, 2월1일 손해사정보고서를 접수하고 2월17일자로 3천4백80만원의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다.

● 복구 및 화재후 상황

전주시 중앙동 상업지역내에 위치한 한아름백화점은 화재를 당한 다음날부터 즉시 복구작업에 착수하여 3월 10일경 완전 복구하였다고 한다.

한아름백화점은 화재를 경험한 이후 화재에 대한 무서움을 새롭게 인식하고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물론 건물 전반에 걸쳐 방화설비를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한다.

임병록사장은 화재가 발생한 이후 한아름백화점의 방화대책에 대하여『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평소 화재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는데 막상 화재를 당하고 보니 화재보다 더 무서운 재난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과 같이 화재를 당한후 건물내에 오려

된 포말소화기 등을 ABC급 분말소화기로 교체하고 건물 천정, 간막이 등 내장재도 불연재로 교체하는 등 방화설비와 시설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라고 자랑한다.

한아름백화점은 이밖에도 층별 각종 방화문을 자동방화셔더로 교체하는 등 건물내의 불량 방화설비를 대폭 교체하였다.

한아름백화점은 백화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백화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1층과 2층의 3백67평 정도에 불과하고 3층 레스토랑, 4층 스텐드바, 5층 디스코클럽 등 유흥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로 지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업주와 관련 종사원들에게 실시해야 하는 소방교육훈련이 실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관련 종사원들에 대한 소방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임사장은『방화시설은 이미 법규에 맞게 설치 완료했으므로 앞으로는 직영종사원은 물론 임대업주와 관련 종사원들에게도 소방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사장은 이어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화재층의 복구에 총1억2천여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되었는데 협회에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주었기 때문에 피해복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특수건물의 보험제도에 대하여 모든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전제하고『처음에는 이해부족과

자금사정으로 보험을 기피해오다 특수건물은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직원의 권유를 받고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화재를 당하고보니 특수건물의 의무보험제도가 좋은 제도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사장은 관련기관 등에 요망사항으로『화재복구공사를 하는 가운데 느낀 것은 방화용품의 가격이 비싼 편이어서 설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히고 보다 저렴한 방화용품이 보급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건물의 방화설비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사장은 이어 소방관련법규도 빈번하게 개정됨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않고 낭비가 많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재가 발생한 5층 나이트클럽은 가연물이 많아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없었으며 뿐만 아니라 잘된 방화구획 덕택으로 연소가 확대되지 않고 진압되었다는 사실이 다행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유흥장화재에서 보기 드문 특이한 현상이었다고 느껴졌다.

이러한 결과는 평소 방화설비가 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는 사실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모두 완벽한 방화설비가 주는 교훈을 한아름백화점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㉞

● 취재 / 이두홍 <홍보과장>